

◇경상 1 평가기준

(1) 각 지문들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가?

- ▶ 제시문 (가): 수학여행처럼 기획된 여행이 갖는 의미.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찾을 수 있게 되는 여행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 ▶ 제시문 (나): 일상의 삶과 떨어져 보는 여행의 의미. 그를 통한 자아와 인식의 성장.
- ▶ 제시문 (다): 내면의 여행이 갖는 특징과 가치.
- ▶ 제시문 (라): 현지의 삶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행의 추구.

(2) 영어 지문인 (나)를 이해하는가?

어떤 이는 집을 떠나 위험천만하고 짐승들과 적대적인 이방의 것들이 우글대는 원형적인 광야로 탐험을 떠난다. 자신의 안팎에 있는 타자(他者)와의 이러한 만남은 안락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기(寒氣)와 굶주림을 감수하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요구한다. 너는 집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고독은 네가 삼켜야 할 빵이다. 너의 뼈는 먼 훗날 어느 강기슭 진흙 속에서 발굴될지 모른다. 탐험은 자유와 확장과 해방을 허락한다. 속박이 없는. 고착이 없는. 얼마 동안 미친. 그것은 금기를 깨뜨리고, 일탈에 근접하며, 겸손을 가르친다. 집을 떠나—금식하고—외로이 노래하고—종(種)의 경계를 가로질러 대화하고—기도하고—감사하고—돌아오는.

(3)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지는가?

<보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기는 여행의 모습 (패키지 여행일 수도 있다).

- ▶ 제시문 (가)와의 비교: <보기>는 정형화되고 기획된 여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그를 통한 사회적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채 개인적 즐거움에 그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 ▶ 제시문 (나)와의 비교: 낯선 곳을 찾아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추구하는 점이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고행을 통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다.
- ▶ 제시문 (다)와의 비교: 현지로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어서, <보기>의 내용과 근본적인 대립을 보여준다.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굳이 찾자면 현지에 대한 기억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 ▶ 제시문 (라)와의 비교: <보기>에 제시된 여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일 것이며, 현지의 삶을 그저 구경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생각할 수 있다.
- ▶ 논평: 개인적으로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론은 앞에서 이루어진 비교 분석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비고
1~2	지문 내용의 이해, <보기>와의 비교를 논리적이고 적절하게 전개하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동일 등급구간에서의 등급 차이는 영어 지문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3~4	지문 내용의 이해, <보기>와의 비교를 적절하게 전개하지만 한두 지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더러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는 경우	
4~5	지문의 이해와 비교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구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내용이 빈약한 경우	
5~6	지문 내용의 이해, <보기>와 비교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경우	
6~7	지문의 내용은 이해하지만 <보기>와 거의 비교해 내지 못하는 경우	
7~8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공통 평가 항목

- ▶ 이해력(30%)
- ▶ 통합적 사고력(30%)
- ▶ 독창성(20%)
- ▶ 구성 및 표현력(20%)

◇경상 2 평가기준

<문제2-1 답안>

- ①의 경우: 부채감축이 없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5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이 없으면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50 \times \frac{1}{3} + 30 \times \frac{2}{3} = 70$ 억 달러이다.
- ②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즉, 기존부채 150억 달러-감축액 3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에도 불구하고 두 채권국 모두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20 \times \frac{1}{3} + 30 \times \frac{2}{3} = 60$ 억 달러이다.
- ③의 경우: B국만 30억 달러 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B국에게 120억 달러를, C국에게 150억 달러를 지급한다. 만약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한편 B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가정 5)에 의해 경기변동확률의 변화가 B국뿐만 아니라 C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20 \times \frac{1}{2} + 30 \times \frac{1}{2} = 75$ 억 달러, $150 \times \frac{1}{2} + 30 \times \frac{1}{2} = 90$ 억 달러이다.
- ④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두 채권국 모두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20 \times \frac{1}{2} + 30 \times \frac{1}{2} = 75$ 억 달러이다.

<문제 2-2 답안>

채권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②의 경우)은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①의 경우)보다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시킨다. 반면, 구조조정조건이 동반된 부채감축(③ 또는 ④의 경우)은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부채의 일부분을 탕감해 주는 동시에 채무국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 상환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와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의 경우보다 클 때에 이에 임할 것이다.

<문제 2-3 답안>

③의 경우에 따르면, B국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A국의 채무를 30억 달러 감축해줄 때 예상되는 상환액은 75억 달러로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70억 달러)에 비해 유리해 진다. 하지만, B국이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A국의 경기 호전 확률이 1/3에서 1/2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은 C국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상환액도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C국이 B국의 구조조정 요구 및 부채감축에 무임승차한 결과 B국보다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B국 역시 C국이 먼저 부채감축을 실행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먼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채권국이 다른 채권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채감축 계획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국의 예상 상환액은 70억 달러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채권국 (B,C)이 함께 채무국의 부채를 감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부채감축에 따른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채권국 모두 예상 상환액을 75억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1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1.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의 값을 정확히 계산 한 경우. 2. <문제 2-2>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고(구조조정의 요구가 없는 경우의 예상 상환금액은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 구조조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예상 상환금액은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3. <문제 2-3>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고(B국의 예상 상환금액은 75억 달러이고 C국의 예상 상환금액은 90억 달러이므로, C국이 B국 보다 더 큰 이득임),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2	1.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의 값을 정확히 계산 한 경우. 2. <문제 2-2>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제시문 직접인용)

	3. <문제 2-3>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제시문 직접 인용)
3~4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 중 한 문제 틀린 답을 제시하였지만, <문제 2-2>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한 경우.
5~7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 중 두 문제 혹은 세 문제의 틀린 답을 제시하였고, <문제 2-2>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에서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한 경우.
8~9	<문제 2-1>에서 모두 틀린 답을 제시하고, <문제 2-2>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공통 평가 항목

- ▶ 이해력(30%): 제시문의 요지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 ▶ 분석력(40%):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계산능력
- ▶ 통합적 사고와 적용력(20%):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 ▶ 표현력(10%): 문장표현,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